

2018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본심심사 종합심사평

2018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은 총 1,126편이 접수했으며, 예심을 통해 그 중 78편이 본심에 진출하였다. 본심 심사는 독창성, 완성도,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11명의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독창성은 소재, 캐릭터 등의 설정이 참신하고 매력적인지를 중심으로, 완성도는 주제가 명확하고, 어휘력·문장력·구성력이 탁월한지를 중심으로, 시장성은 대중성이 뛰어나며 호응도 높은 스토리인지를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은 콘텐츠 제작(사업화)이 가능한 스토리인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지원 작품은 사극물, 장르물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사업화 희망 분야는 영화, 드라마가 많았다. 작품의 장르를 고려하여, 한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본심 진출 작품 78편 중 총 10편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귀시’, ‘마더스 (Mothers)’, ‘양녕외전’, ‘인강(the Internet Lecture)’, ‘인선도(人善島) 특수작전’, ‘잃어버린 물건들의 세계’, ‘전설의 살인’, ‘조선후궁실록_연홍전’, ‘천하장사 얼룩이’, ‘과계재판’ 으로 총 10편이다.

‘귀시’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와 이야기를 재미와 긴장을 유지하며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흥미진진한 전개와 그 안에 얹힌 크고 작은 반전까지 스토리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작가는 대중의 호기심을 어떻게 증폭시킬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대중의 관심을 붙들고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캐릭터의 설정과 사건, 작품의 톤앤매너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완결성도 뛰어나다. 전형적이지 않은 주인공 캐릭터가 주는 현실감과 생동감도 매력적이다.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다양한 분야로 사업화가 가능하며, 시리즈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스토리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소재의 신선함과 완성도, 대중성, 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두루 겸비한 훌륭한 작품이다.

‘마더스’는 여러 기발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어떤 콘텐츠가 될지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진다. 타임 슬립 소재의 유행이 지난 것은 아쉽지만, 유행을 넘어서는 주제의 힘이 있다. 현실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부모를 성장시키는 것은 자식이다. 그런 부분에서 드라마가 있고, 캐릭터들 간의

감정선이 잘 연결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스토리와 구성을 보여준다. 캐릭터에 보다 집중한다면 재미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양녕외전’은 판타지적 요소가 있어 다른 사극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작품이다. 스토리가 신선하고 대담하며, 소재와 주제가 명확하여 구성력이 높다. 특히 역사적 실제 인물과 새로운 인물의 복합적인 설정으로 대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갈등 배치도 적절하고, 문장이 잘 정돈되어 있어 스토리가 탄탄하게 전개된다.

‘인강(the Internet Lecture)’은 요즘 젊은 세대가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소재이다. 아울러 기성세대에게는 자신들이 모르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코믹하게 잘 구현해냈다.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 대중성 있는 트렌디한 장르물에 어울리는 이야기로 캐릭터와 이야기의 조합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학원물의 특징을 잘 뽑아내고, 그 이야기 안의 캐릭터 설정 및 성격을 잘 표현해냈다. 현대인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 다루고 있어 대중의 공감도가 높을 것이다.

‘인선도(人善島) 특수작전’은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각이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스토리가 하나 또 만들어진 것 아닐까 기대한다. 작가 스스로 하고픈 이야기(주제)를 적절한 장르와 톤앤매너로 유쾌하게 풀어냈다. 작은 소품 드라마 한 편이지만 따뜻함이 있어 감동과 정서의 측면에서 우수하다. 상황 설정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인물들의 관계가 매력적인 작품이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가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갈등과 각 인물 간의 벌어진 사건에서 순조로운 해피엔딩이 아닌 서로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이야기의 구조가 적당히 꼬여 있고, 반전 요소도 잘 숨겨져 있다. 블록버스터와 같은 화려한 액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액션을 볼 수 있는 짜임새를 갖고 있다. 장르적인 특수성이나 차별점도 있어 사업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작품 제목을 스토리에 맞게 수정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잃어버린 물건들의 세계’는 상상력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새로운 색깔의 판타지의 느낌이 든다. 작품 속 세계관이 잘 구축 되었으며 극적 구조나 전개도 훌륭하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이지만 어른들도 중심의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갖추고 있다. 작가는 대중이 캐릭터에 호감을 느끼고 응원하게 만들 줄 안다. 타깃을 확실하게 정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면 애니메이션이나 동화, 뮤지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전설의 살인’은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캐릭터 설정과 각각의 에피소드가 흥미롭다. 비현실적이지만 오히려 시대의 답답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통쾌함이 있다. 스토리가 간결하고 재미있으며, 내용 전개도 유쾌하고 풍성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스토리이다. 캐릭터와 인물의 구도가 매력적이며,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시리즈물의 요소를 갖춘 작품이다.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 또한 탁월하여 읽는 동안 웃음과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드라마와 웹툰에 적합한 작품이라 생각되며, 해당 분야로 작품을 발전시킨다면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후궁실록_연홍전’은 경쾌하고 호흡이 빠르면서 긴장감이 있어 집중력이 높은 작품이다. 심각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볍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재미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 주연 캐릭터와 주변의 관계가 흥미로운 작품이다. 멜로 요소가 매력적인 작품으로 앞으로 기대가 된다. 작품의 무게감과 스타일로 봤을 때 재기발랄한 콘셉트로 웹툰과 웹소설에 적합해 보이며,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하장사 얼룩이’는 선한 요소들이 뭉쳐서 선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이 혁신의 원동력으로 칭송되는 시대에 여전히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현 세태에 대한 풍자라고도 생각된다. 따뜻함과 정겨움, 동물을 의인화하여 농촌 현실을 꼬집은 풍자와 은유 등도 좋은 편이다.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 어린이용으로 잘 짜인 성장스토리 동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과계재판’은 캐릭터가 유쾌하고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코믹 스토리이다. 특히 주인공 캐릭터를 잘 설정한 것 같다. 새롭게 조선의 역사를 해석했고,

주제 의식이 뚜렷한 범정물이라는 점이 흥미가 있었다. 소재 자체의 신선함과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며 기발하고 시원하다. 영화보다는 드라마 포맷으로 경쟁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전문성과 캐릭터의 매력이 가미된다면 더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상 10편이 작품이 최종 공모대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랜 논의 끝에 선정된 작품들인 만큼 사업화에 힘을 기울여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제작되기를 바란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작품 중에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가 다수 있었다. 비록 이번에는 제한된 수상 작품 수로 인해 뽑히지는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훌륭한 콘텐츠로 완성되기를 바란다.